

2011. 12. 19.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: 2012년 멕시코 G20 아젠다

World Economy in 2012 and Global Economic Cooperation: Issues for the Mexican G20 Ahead

- 기간: 2011년 12월 19일(월)
- 장소: 서울 롯데호텔
- 주최: KDI · 기획재정부

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세션2. 국제통화체제

발표 1.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의 향후 전망과 역내 협정의 역할

웨이 벤화 AMRO(아세안+3 거시경제감시기구) 의장

- ASEAN+3 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추진 등 지역 통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음.
- CMIM는 IMF보다 규모는 작지만, 지역 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크게 기여했음.

- 한국·일본·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의 CMIM에 대한 기여도는 90%로서 절대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.
 - 홍콩을 포함하는 중국은 달러 스왑제도를 활용해 CMIM의 30%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.
 - ASEAN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, CMIM의 양적 성장 가능성이 높음.
- IMF 비연계 계정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주체성 강화 등, 양적 성장 이외에도 CMIM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함.
 - 이외에 AMRO 강화를 통한 CMIM 효율성 개선, ASEAN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규모 확대에 걸맞은 제도 및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임.

발 표 2. 2011 G20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: 신흥국 관점에서의 성과와 과제
손병두 기획재정부 G20 기획조정단장

- **현행 국제통화체제 하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경제국 간 견해 및 입장 차이는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.**
 - 개발도상국들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를 깊이 불신하게 되었으며, 선진경제국들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

- **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통화 유동성을 확보하고, IMF 등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을 활용해 환율 안정화 등 세계경제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.**
 - 특히, 효율적인 국제경제기구 제도 구축과 정책 추진을 위해 각국에 국제협약 추진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함.

- **G20를 통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IMF 등 국제통화체제는 상당부분 개선, 강화되었음.**
 - 각국 정상들의 적극적 참여로 국제통화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졌으며, 자국의 이익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기 시작했음.
 - 세계경제 측면에서 상충하던 각국의 독립적인 정책 간에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제경제 안정화에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기 시작하였음.

- **향후 세계경제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체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.**
 - 수혜국 의존도 심화, 자국경제 주체성 약화 등 IMF 역할 강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, 2008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경제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진경제국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임.
 - 국제통화체제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는 IMF와 각국 중앙은행 간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함.

발 표 3. 국제금융시스템 개혁: 프랑스 G20 정상회의 성과 및 향후 과제
앤 에폴라드 프랑스 재무부 차관보

- 글로벌 경제환경은 합리적 우선 순위에 따른 정책 추진에 있어 각국 경제부처의 많은 지혜를 요청하고 있음.
 - 프랑스는 서울 G20에서 합의된 국제공조를 위한 자국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.
 - 이에 따라 2008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경제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세계 경제안정망 구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.
 - 또한 현재 유로존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·지역·세계 경제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과 해결책 모색이 최우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음.

- 각국의 통화 흐름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냄.
 - 프랑스는 유동성 확보 원칙에 동의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 개방성을 확보할 계획임.

- 무역의 세계화가 세계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듯이 국제통화체제 강화 역시 장기적으로 큰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, 거시 경제 간 연계성 확대는 향후 통화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제통화체제 강화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함.

- 2008년 이전과 같은 미국의 단독체제로는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,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전통적 선진경제국뿐 아니라 신흥 경제대국들 또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임.
 -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의 역할 강화가 기대되며,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 선진경제국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함.
 - 재정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(PLL) 과 Rapid Financing Instrument(RFI) 등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.

- 프랑스는 IMF, 유로체제 등 국제기구들과의 공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임.
- 본 발표에 포함된 정책들은 이미 추진되었거나 상당 수준 구체화된 것들로서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위기상황은 이미 해소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함.

토 론 1. 쇼고 이시이 IMF 아시아태평양국 동경지역사무소장

- 2008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IMF의 현금 대출(Capital Lending) 확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,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만한 IMF 자체의 현금 확보(fund securing) 노력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 - 현금 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모 및 상환기간 선정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,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IMF 재정건전성 유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.

- IMF는 적재적소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현금흐름도 측정(Capital Flow Measures, CFMs)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.
 - 가급적 ASEAN+3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체제를 활용해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이 시급하게 되는 시점 전에 재정적 조언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 - 그러나 CFMs는 각국의 거시정책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각국은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거시정책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.

토 론 2. 양두용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

-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전통적 국제통화체제의 주요과제는 국제무역의 원활화 및 세계화로서 국제환율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음.
- 그러나 2008년 금융권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교역재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관계가 아닌 금융 중심의 통화체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하게 함.
- 그 결과 기축통화의 다원화 및 국제경제기구의 권한 강화를 통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음.
 - 현재의 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에 따른 세계경제 재편은 경제안정화 이후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, 인위적 변화가 야기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.
 - 예컨대, 기축통화 다원화는 세계경제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추진 방식과 시점,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.